

제 1 강 : 환상을 보는 지도자

-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 우리시대의 열망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을 주었던 지도자는 모두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로 구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에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을 두 세대에 걸쳐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즉 리더십의 계승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혀 다른 리더십의 형태를 가졌지만 한가지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모세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1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바친 2세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모세의 지도력

1. 모세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서 왕궁 교육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족을 살해하고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그가 배운 것은 자신의 힘만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3. 모세는 온유한 심정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한때 주저하고 고민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외로운 투쟁을 해야 했으며 수많은 위협

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한 두 번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온유한 심정으로 순종했습니다.

2. 여호수아의 지도력

1.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과업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미완성 해 놓은 과업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하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갈등 없이 순종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2.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 간 지도자입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일을 이루어 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전쟁을 치렀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순종이었습니

3. 여호수아는 거룩과 성결한 삶을 추구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모세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네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부정 사건이 났을 때 주저 없이 법에 따라 처형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질 때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헌신과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3.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력

1. 하나님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지도력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지도력을 요구합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며 행동하는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동일한 환상을 갖는 지도력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지도력만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는 지도력입니다.

3. 거룩하고 순결한 지도력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비전과 사역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만이 진정한 지도력을 유지시키고 완성하는 힘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